

#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문화적 영향\*

Herman G. van de Werfhors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stván György Tóth (헝가리 타르키사회연구소 소장)

## ■ 머리말

경제적 불평등은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패턴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설명은 실증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불평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논의하고, 불평등이 정치적 참여, 민주적 가치, 사회적 신뢰, 불평등에 관한 개인적 관심과 같은 사안들을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집행위원회 재원으로 진행되는 연구프로젝트인 'Growing Inequalities' Impacts(이하 GINI)의 여러 연구 패키지(Work Package) 중 하나의 연구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삼고자 한다.

불평등의 결과에 대한 초점은 자연스레 최근 수십 년간 사회 각층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 이 글은 '불평등의 확대와 그 영향(Growing Inequalities' Impacts (GINI))'에 관한 유럽 연구프로젝트의 'Work Package 5'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문헌 목록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gini-research.org](http://www.gini-research.org)의 'Work Package 5 Report'에서 찾아볼 수 있다. GINI 프로젝트는 유럽집행위원회 제7차 기본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의 재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주거, 보건, 가족 구성, 생활수준, 정치적 참여, 사회적 신뢰 및 가치 지향과 같은 광범위한 결과에 경제적·교육적 불평등이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GINI 프로젝트는 불평등이 그러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이 불평등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수준에 대한 학문적·정치적·사회적 인식과 우려를 기초로 한다. 이들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그 패턴과 동향에 있어 국가별·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80년대 이후로 증가하였다(OECD, 2008; 2011; Salverda, Nolan and Smeeding, 2009). 불평등을 광범위하게 이해하자면, 단지 은행 계좌 잔고뿐 아니라 기타 복지와 사회 참여의 지표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한다. 또한 불평등이 한 사회의 사회적 결속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도 문제다. 정치적·문화적 영향은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결과들로 이루어진 핵심 영역을 구성한다. 불평등 심화는 정치적 참여에 있어 사회 집단 간 차이를 넓히는 형태로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가? 가치 체제는 불평등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가?

여기에서는 경제적 불평등(특히, 가계소득 불평등)의 정치적·문화적 영향과 국가 간 비교에 각별히 중점을 둔다. 이렇게 실질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을 택한 것은 다분히 실용적인 이유에서다. 이 연구에서 논의를 위해 사용된 자료의 상당 부분이 비교를 위한 횡단면(cross-sectional) 조사 자료다. 연구 설계상 어느 부분에서도 특정 수준의 불평등과 관련하여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불평등과 정치적·문화적 결과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인과적 주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이론 주도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며, 이 접근법에 대해서는 ‘불평등의 정치적·문화적 상관성: 중심 내용’에서 소개한다. 불평등, 사회적 결속 및 기타 문화적·정치적 삶의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한 가설을 수립한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등이 정치적·사회적 참여, 사회적 신뢰 또는 가치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여러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관계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 인과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고자 한다.

## ■ 불평등과 그 영향: 이론적 개괄<sup>1)</sup>

불평등과 정치적·문화적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연구 대상인 여러 결과들과 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이 제시되었다. 불

1) 이 장에서는 주로 Lancee and Van de Werfhorst(2012)의 연구 결과에 의존한다.

평등이 우리의 연구 대상인 다양한 결과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타당한 이론적 주장이 제기된다면, 불평등과 그 결과들의 연관 가능성은 학문 및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연구로 Wilkinson and Pickett(2009)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Wilkinson and Pickett는 소득불평등은 사회에 해롭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결속 정도가 낮아 사회적 문제가 많고, 높은 범죄율과 사망률, 열악한 보건 상황, 심각한 교육 불평등, 낮은 사회적 신뢰, 낮은 정치적 참여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Wilkinson and Pickett는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지위 격차와 관련된 ‘심리사회적(psychosocial)’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평등과의 인과 관계를 주장하는 논지를 통해 불평등의 효과에 관한 신물질주의(neo-material) 이론, 즉 불평등은 여러 인구 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과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Lynch et al., 2000).

불평등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 관점으로 심리사회적 이론과 자원 이론(resources theory)이 있으며, 여기서는 다음 장에서 두 관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두 접근법의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거나, 둘 중 어느 관점이 불평등과 연구 대상 현상의 상관성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관점은 서로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Elgar and Aitken, 2011). 여기서는 불평등 및 그 결과의 동향을 기술하고, 가능한 공변성(co-variations)을 일부 설명하고, 관심 대상인 결과들에 대해 자원과 심리사회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관점에 비추어 이러한 상관성을 해석한다.

## 불평등 효과의 심리사회적 이론

불평등이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리사회적 이론에 의하면, 낮은 사회적 신뢰, 높은 범죄율, 열악한 보건 상황, 낮은 민주적 참여도와 같은 부정적 결과는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분포 정도가 더 고르지 못한) 개인 또는 가계 간 ‘자원’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Wilkinson(2005), Elgar and Aitken(2011), Elgar et al.(2009), Uslaner and Brown(2005), Layte(2011)와 같은 다양한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평등과 부정

---

적 결과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적 관계가 열쇠임을 강조한다. Wilkinson의 말을 빌리면, 여러 연구의 실증적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소득불평등은 한 사회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 및 사회적 환경의 성격과 밀접하고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999: 526).

더 나아가, Layte(2011)는 심리사회적 이론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주로 관련이 있으며(이 이론의 ‘사회적’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Kawachi et al.(1997), Putnam(2000) 참조), 다른 하나는 지위 격차의 심화에 따른 심리학적 결과(가령, 스트레스)를 강조한다.

불평등의 심리학적 결과는 Neckeman and Torche(2007)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으며, 이 두 저자는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의 삶은 저소득 개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Wilkinson and Pickett(2009)은 지위 격차는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더 두드러지며, 그 결과로 스트레스와 무관성(unrelatedness)의 감정이 생겨난다.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지위 격차를 소득으로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불평등 효과의 연구에 있어 지위 등급과 사회적 계급을 사용할 것을 호소한다(Goldthorpe, 2010). 그러나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주요 계층화 변수들의 분포 변화가 그러한 변수들의 지위 결정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일반적인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고 있다(Lancee and Van de Werfhorst, 2012).

불평등 효과의 심리사회적 이론과 관련한 다른 주장으로 사회적 동류선호(social homophily)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이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McPherson, Smith-Lovin and Cook, 2001). 계층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 간의 거리는 더 넓고, 결과적으로 소득별 집단 간 상호작용 정도는 더 낮다. 이는 특히, 빈곤층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시민적 참여를 저해하게 되며, 심지어는 빈곤층의 의견이 정치 체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Uslaner and Brown, 2005; Rothstein and Uslaner, 2005). Oxendine(2009: 26)는 “경제적 계층화 상태에서 빈곤층은 자신들의 지위가 낮다고 느끼며 자신들에게 부족한 부를 부러워하고 계속 갈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이론의 요지는, 불평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가 서로 달라지면서 그 결과 지위 경쟁과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을 기회가 더 적어진다.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사람들 사이의 사

회적 거리는 더 커져 낮은 사회적 신뢰, 높은 스트레스,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과적으로 취약집단은 시민적·사회적 참여를 거부한다. 또한 건강, 범죄, 그리고 웰빙도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Alesina et al., 2004).

## 불평등 효과의 신물질주의 이론

소득격차의 심리사회적 결과 외에 신물질주의 이론(‘자원 이론’이라고도 함)은 사회적 결속을 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계층의 자원 가용성이라고 주장한다. 자원 이론에 따르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Lynch et al.(2000)는 “신물질주의적 해석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의 효과는 광범위한 인적·물적, 보건 및 사회적 인프라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투자 부족과 함께 개인이 처한 부정적 상황 및 자원 결핍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평등 효과는 대인적 과정의 심리사회적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불평등은 개인/가계 차원과 더 큰 맥락(즉 국가, 지자체 등)에서 자원의 (불)가용성과 관련된다. 불평등한 사회는 자원의 분포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더 심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게 이로운 보건 의료, 복지국가 장치와 같은 인프라 및 시설의 제공에 있어서도 더 불평등하다. 그러한 시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출 또는 보건의료 지출과 같은 개인 및 사회 차원의 자원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Lancee and Van de Werfhorst, 2012; Layte, 2011).

요컨대 우리는 GINI 프로젝트를 통해 불평등이 정치적·문화적 현상과 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앞서 언급한 심리사회적 접근법 및 신물질주의 접근법과 같은 이론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은 실증적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이 테스트에서는 ‘가설을 반증하거나 반증하지 않는’ 과학적 정보가 제공된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사실은, 불평등이나 정치학과 같은 사안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신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과학에 대한 강력한 반증주의적 접근법(falsificationist approach)은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정책입안자의 열망과는 상반된다. 확실성을 갈망하는 입장과 실증-이론적 사회과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재된 불확실성과 충돌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요한 쟁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유용한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가설에 대해 실증적 테스트를

---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구체화함에 있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에서는 GINI 프로젝트에서 실행된 다양한 여러 연구 설계와 이러한 설계가 불평등과 정치적·문화적 결과 사이의 가능한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 인과성에 관한 해설

한 사회에서 불평등의 수준과 정치적·문화적 결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GINI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적이 불평등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인과관계에 관한 개념은 연구 결과 해석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불평등과 결과의 연관성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

여기서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는 대체로 국가 간 비교에 의한다. 그러한 비교에서는 인과성을 엄격한 의미에서 평가할 수 없다. 개인을 다양한 수준의 불평등에 무작위로 배치하는 무작위 배정을 할 수가 없는데, 결과변수 측정은 이러한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무작위 실험 방법이라는 황금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엄격한 의미의 인과성 주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과성과 관련하여 언급하여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정의상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든 간에 과학적 연구에 의해 제시된 명제는 불확실하다. 결코 특정한 ‘진실’을 밝혀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포퍼의 과학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설의 입증이 아니라 반증이 과학의 진전을 이끈다. 가능한 최상의 실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둘째, 학문적 연구가 무엇을 생산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지식의 종류와는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불평등이 사회적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정책입안자와 정치가들은 불확실성을 감내하기가 힘들다.

이 두 사항이 의미하는 바는 과학적 진보는 연역적 이론 설정과 가설 수립을 통해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John Goldthorpe(2001)가 “창출적 과정으로서의 인과성(causation

as a generative process)”이라고 불렀던 인과적 접근법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한 인과적 접근법에서는 개별 행동 차원에 대한 ‘인과적 해설(causal narrative)’로부터 이끌어 낸 가설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증적 규칙성(empirical regularities)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가설은 실증적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가령 소득불평등과 정치적 참여 사이의 부정적 연관성이 실증적 규칙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 접근성에 의하면, 관련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가 그 모형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연관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또한 ‘처치 변수(treatment variable)’ (즉, 불평등)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의로 통제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불평등이 낮은 참여도와 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개별 행동 및 동기 이론을 구체화할 수는 있다. 연관성을 이론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인과성을 밝히는 이러한 접근법은 관측(즉, 비실험적) 자료에 의존도가 높아서 사회과학에 있어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Gerring, 2005).

GINI 프로젝트에서 수행한 작업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불평등과 결과들의 연관 이유에 관한 이론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이론에 대한 실증적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GINI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가 ‘필연적 조작(consequential manipulation)’ 패러다임에 따른 인과적 분석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불평등이 연구 대상인 다양한 결과들과 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론적 주장이 제시된다면 불평등과 결과 사이의 연관 가능성은 과학적·정책적 관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 ■ 불평등의 정치적·문화적 상관성: 중심 내용

이 연구 패키지의 목적은 교육과 소득/재산의 불평등이 정치적·문화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이 프로젝트에서 ① 불평등의 인식, ② 시민적·정치적 참여, ③ 재분배에 대한 선호(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④ 정치 제도에 미치는 영향, ⑤ 정치적 정당성 등과 관련된 결과들을 밝혀내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은 여러 면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여러 논문에서 어느 영역들은 다른 영역들에 비해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그 이유는 데이터

제약, 정의나 개념화의 이론적 모호성 때문임). 일부 연구 결과는 불평등과 다수의 정치적·문화적 결과 사이의 상호관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다. 논문은 하나의 특정 결과(또는 일련의 결과들)를 따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문제는 단편의 증거들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가다. GINI 프로젝트의 모든 연구 결과들로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적 내용이 도출되는가?

이 장에서는 그와 같이 도출되는 좀더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전체적인 그림은 다소 이론적이다. 불평등이 정치적·문화적 분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관계들의 각각에 대해 어떠한 강도 높은 실증적 테스트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적 그림의 바탕이 되는 단편의 증거들은 더 광범위한 연구 문헌과 GINI 프로젝트 작업 전반에 산재해 있으며, 때로는 서로 다른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다른 운용 방식이나 국가 조합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 그림의 각 요소가 실증적 증거로 입증될 수 있을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요약의 위해 우리는 GINI 연구의 산출 변수(output variables)를 재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는 불평등이 반영된 개별적 현상들, 즉 불평등 인식, 참여도, 선호(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③)를 배정하였다. 두 번째 그룹에는 정치 제도에 대한 결과들(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④)을 넣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정치 제도의 정당성(즉,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용인으로 상술된 요인 ⑤)을 언급한다.

## 불평등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불평등 심화와 구체적인 사회적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횡단면적, 국가간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 불평등 용인 수준이 높다(Yaish and Andersen).
- 인식된 불평등 수준에 대한 불만에 아무런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Medgyesi).
- 모든 유형의 — 정치적·시민적·사회적·문화적 — 참여와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다(Hom).
- 재분배 선호와 긍정적 관계에 있다(Tóth and Keller).

상호 경쟁적이라 할 수 있는 해설 방식들을 서로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불평등과 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물질주의적 논점은 심리사회적 이론보다 더 강력한 해설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시민적·사회적 또는 문화적 참여에 관해서는 Lancee and van de Werfhorst, 투표와 관련하여서는 Hom, 신뢰의 경우에는 간접적이기는 하나 Steijn and Lancee). 이와 같은 주장은 불평등과 네트워크의 사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Letki and Mierina에 의해 강화되었다. 또한 재분배 선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물질적 자기이익(material self-interest)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이 인식되는 불평등 수준에 대한 불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는, 특히 연구에서 관측된 상관성은 내생성(endogeneity), 누락변수 편의(omitted-variables bias) 등으로 인한 인공적 부산물일 수 있기 때문에 횡단면적, 국가간 비교 자료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동일 국가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할 수 있다. 불평등과 그 산출 변수의 시간 간 편차(inter-temporal variation)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불평등의 '진정한' 효과를 밝혀내는 데 한 발 더 가까이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시간 상수 국가별로 관측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태도의 시간 간 편차를 이용한 결과에 의하면, 불평등 태도는 실제 불평등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dgyesi).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더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 박탈감 가설(relative deprivation hypothesis)에 의해 설정된 관계와 일맥상통한다.

## 불평등이 정치세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불평등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Meltzer and Richard(1981)의 논리를 이용하여 기술하는 편이 유용할 듯하다. 이 모형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기는 했지만(가령, 유권자 동기를 물질적 자기이익으로 단순화), 기본 요소들은 실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불평등과 재분배 선호의 연관성을 테스트한 결과는 기본적 정치경제 모형에 합치되며, 이는 불평등이 재분배 선호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평등과 재분배 사이의 연결 고리의 단절 여부는 재분배 선호가 어떻게 재분배 자체로 변환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를 설

---

명하기에는 과반수 투표 논리(majority voting logic)가 부적절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제도주의적 논리(institutionalist argument)’로,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의 구조(structure of inequality)’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GINI 프로젝트의 관련 논문에서는 정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 요소들을 추가로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의 불평등 수준과 재분배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좌-우파 입장에 대한 선호를 형성한다(Van der Meer and Hakhverdian).
-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정치적 선호와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치들에 영향을 미친다(Comeo).
- 불평등은 정당의 위치 정립에 있어서 세계화 반대입장과 관련이 있다(Burgoon).

향후 연구 과제는 사회적 규범, 사전적 불평등 수준(ex ante levels of inequality), 재분배 수요, 정치적 대응, 재분배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풀어내는 일일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향후 연구에서는 불평등이 광범위한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유권자, 정부 및 기타 사회적·정치적 주체들의 정치적 입지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불평등이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일반적인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원으로 측정되거나 표현되는 정당성은 분명히 사회적 신뢰와 (불)공정성 인식 정도,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태도(Eurosceptic attitudes), 삶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개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지지 등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GINI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불평등 (불)관용과 게임의 규칙 (불)용인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사회에 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정당성 (legitimacy)은 낮으며, 불평등의 경험 이 적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다(Andersen).
- 정당성은 사회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사회의 낮은 불평등 수준 이 높은 정당성으로 이어진다(Andersen).
- 정당성은 교육 불평등과도 관련이 있는데, 유럽식 비관주의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교 육 격차가 존재하며 이 격차는 확대되었다(Hakhverdian).
- 소득불평등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 개입 및 재정지출에 대한 지지와 관련이 있다. 소득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 며 정치적 정당성도 낮다(Zagórski and Piotrowska).

## ■ 맺음말

다시 요약하면,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체로 실제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시민들은 불평등 정도가 낮은 사회의 개인에 비 해 더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 더 잘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ish and Andersen, also see Alesina et al., 2004)
- ② 그러나 불평등이 더 심한 사회의 개인은 재분배(Tóth and Keler)와 정부 개입(Zagorski and Piotrowska)에 더 호의적이며, 불평등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dgyesi).
- ③ 또한 전통적인(즉, 경제적) 좌-우 이슈들은 더 평등적인 사회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Hakhverdian and Van der Meer). 전통적인 분배와 관련한 좌-우 이슈의 논의 정도와 불 평등 사이의 인과성에 대한 고찰에 의하면, 불평등 수준은 낮은 경제적 재분배의 원인이 라기보다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세 가지 연구 결과는 처음에는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사회에서

① 불평등에 대한 관용도가 높으면서 ② 동시에 재분배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는 위의 ③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재분배를 희망하더라도 그러한 재분배 이슈가 논의되는 정도가 낮으면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

기타 연구 결과 중에서, 일부는 이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첫째,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비공식 네트워크의 비중이 크다(Letki). 정치적 투쟁을 위한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며,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진다. 또한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정치적 참여(Hom)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Andersen)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소득 분포의 불평등이 큰 국가일수록 정치적 효율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주요 이론들만으로는 저소득 집단의 참여 부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보다는 심리사회적 프로세스를 통해, 왜 불평등이 여러 사회적 병폐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가능하다(Layte, 2011; Wilkinson and Pickett, 2009; Lancee and Van de Werfhorst, 2012). 불평등이 왜 정치 및 문화 분야의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한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권한에 관한 개인적 고려와 관련된 사회적 프로세스에서 찾을 수 있다. 불평등을 퇴치하려는 열망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한 열망을 기초로 하여 정책적 선택을 하겠다는 동기가 부족하면, 불평등 퇴치를 위한 행동은 거의 취해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근로 윤리는 불평등과 다소 긍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Comeo), 불평등 사회의 시민들은 정치를 삼가면서 동시에 근로 지향성은 더 강한 경향이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당의 의제 수립 측면을 살펴보면(Burgoon), 재분배 정책이 적은 국가일수록 세계화 추세는 정당의 저기술 인력 보호 역할을 강화시켜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이 효과적인 경우에만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위협이 (특히 보수적인) 정당의 보호기능 강화로 반영된다. 좌파 정당은 자체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세계화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이 아니다.

요약하면, 불평등 사회의 집단들은 경제적 재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효율은 크게 줄어들었고, 또한 좌파 정당들은 근로계층을 세계화의 위협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강력하게 변화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

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불평등을 ‘참고 살아가게’ 된다. 또한 선거 선호 관련 중위투표자 모형 (median voter model)을 반증하는 여러 현상도 이러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 참고문헌

---

---

#### **List of Discussion Papers prepared for the GINI project’s Work Package on political and cultural impacts of inequality.**

- Andersen, Robert, “Support for Democracy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The Detrimental Effect of Economic Inequality.”
- Burgoon, Brian, “Inequality and Anti-globalization Backlash by Political Parties.”
- Comeo, Giacomo, “Income Inequality, Value System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 Hakhverdian, Armen and Tom van der Meer, “Does Economic Inequality Structure Political Competition?”
- Hakhverdian, Armen, Wouter van der Brug, Erika van Elsas and Theresa Kuhn, “Eurocepticism and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of Twelve EU Member States 1973– 2010.”
- Hom, Dániel, “Income Inequality and Voter Turnout – Evidence from European National Elections.”
- \_\_\_\_\_, “Educational Selectivity and Opinions on Educational Spending.”
- Jæger, Mads Meier and Anders Holm, “Socioeconomic Change and Social Policy Preferences. Disentangling Causality between Inequality and Attitudes.”
- Lancee, Bram and Herman G. van de Werfhorst, “Income Inequality and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24 European Countries.”
- Letki, Natalia and Inta Mierina, “The Power of Networks. Individu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Mobilizing Social Networks for Help.”
- Medgyesi, Márton,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nd Attitudes to Inequality: A Cohort

---

Perspective.”

- Notten, Natascha, Bram Lancee, and Herman G. van de Werfhorst, “Cognitive Competency and Signaling Status, A Study of Cultural Particip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 Steijn, Sander and Bram Lancee, “Does Income Inequality Negatively Affect General Trust? Examining Three Potential Problems with the Inequality–trust Hypothesis.”
- Tóth, István György and Tamás Keller, “Income Distributions, Inequality Perceptions and Redistributive Claims in European Societies.”
- Zagorski, Krzysztof and Katarzyna Piotrowska, “Income Inequality, Happiness and Statist Attitudes.”
- Yaish, Meir and Robert Andersen, “Public Opinion on Income Inequality in 20 Democracies: The Enduring Impact of Social Class and Economic Inequality.”

### **Reference list**

- Alesina, Alberto, Rafael Di Tella, and Robert MacCulloch(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pp. 2009~2042.
- Elgar, Frank J., and Nicole Aitken(2011), “Income Inequality, Trust and Homicide in 33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1, pp. 241~246.
- Elgar, Frank J., Wendy Craig, William Boyce, Antony Morgan, and Rachel Vella–Zarb(2009), “Income Inequality and School Bullying: Multilevel Study of Adolescents in 37 Countri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 pp. 351~359.
- Gerring, John(2005), “Causation: A Unified Framework for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7(2), pp. 163~198.
- Goldthorpe, John H.(2001), “Causation, Statistics, and Sociolog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1), pp. 1~20.
- \_\_\_\_\_(2010), “Analysing Social Inequality: A Critique of Two Recent Contributions from Economics and Epidemiolog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 pp. 731~744.
- Kawachi, Ichiro, Bruce P. Kennedy, Kimberly Lochner, and Deborah Prothrow–Stith(1997),

---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pp. 1491~1498.

- Lancee, Bram and Herman G. van de Werfhorst(2012), “Income Inequality and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24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forthcoming(also GINI Discussion Paper no. 6).
- Layte, Richard(2011),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Mental Health: Testing Status Anxiety, Social Capital, and neo-materialist Expla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published online.
- Lynch, John W., George D. Smith, George A. Kaplan, and James S. House(2000),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Importance to Health of Individual Income, Psychosocial Environment, or Material Condi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320, pp. 1200~1204.
- McPherson, Miller, Lynn Smith-Lovin, and James M. Cook(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pp. 415~444.
- Meltzer, Allan H., and Scott F. Richard(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pp. 914~927.
- Neckerman, Kathryn M., and Florencia Torche(2007), “Inequality: Cause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pp. 335~357.
- Oxendine, Alina(2009), “Inequality and Indifference: America’s Wealthy and Cross-cutting Civic Eng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67th Annual National Conference, Chicago, April 2009.*
- Putnam, Robert(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Rothstein, Bo and Eric M. Uslaner(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 pp. 41~72.
- Salverda, Wiemer, Brian Nolan and Timothy M. Smeeding(2009)(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Uslaner, Eric M., and M. Mitchell Brown(2005), “Inequality, Trust, and Civic Engagement,”

---

*American Politics Research* 33, pp. 868–894.

- Wilkinson, Richard G.(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New York: The New Press.
- \_\_\_\_\_(1999), “Income Inequality, Social Cohesion, and Health: Clarifying the theory – A reply to Muntaner and Lync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 pp. 525~543.
- Wilkinson, Richard G. and Kate E. Pickett(2009),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Allen Lane.